

북한의 농업협동화시기 국가-마을 관계 연구*

권태상**

- | | |
|-----------------|------------------|
| I. 서론 | III. 마을 주민들의 저항 |
| II. 국가의 마을 장악시도 | IV. 농업협동화에 대한 순응 |
| | V. 결론 |

국 문 초 록

이 글은 북한이 한국전쟁이후 급속하게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장악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농업과 상업 협동화를 통해 마을의 생산, 소비, 노동과정을 사회주의적으로 재편, 전쟁을 통해 발굴된 피 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마을 외부 이주민, 제대 군인을 통해 마을의 주도세력을 재편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마을의 주민들은 농업협동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맞는 독자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 하였다. 혹은 마을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 관념에 입각한 노동, 마을운영을 시도하며 마을의 새로운 주도세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저항은 같은 마을 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에 의해 제압되었다. 주로 제대군인, 피 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외부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마을의 주도세력들은 새로운 농법을 농업협동조합에 적용하여 농업생산량을 높였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을 동원하기 위한 보육시설과 근대적 교육기관을 주도적으로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근대적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미신이나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적 과학을 보급하여 보건위생을 강조하고 과학적 사고를 전파하여 전통적 마을질서를 무력화 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마을은 국가에 의해 장악되었다.

• 주제어: 북한, 마을, 국가-마을관계, 농업협동화, 저항, 순응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5장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2017년 춘계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에서 “농업협동화시기 국가의 마을장악시도와 주민들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당시 토론자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
논문 및 저서 권태상. 2017. “사회주의 이행기 국가-마을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외 다수.

I. 서론

근대국민국가는 한정된 영토 속에서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를 지닌 국가가 물리적 억압기구를 독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어지는 행정 집행체제와 조세 수취체제가 구축되고, 중앙권력기구는 경찰·군대와 같은 물리력을 통해 지방을 장악한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본주의 근대국민국가의 폭압적 지배에 맞서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는 자본주의 근대국민국가와 ‘산업주의’를 공유하였다(차문석, 2001: 26).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는 산업주의와 발전주의를 공유한 자본주의 근대국민국가의 변종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 역시 강력한 중앙집권적 특징을 보였으며 마을단위까지 장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사업과정에서 북한은 급속하게 사회주의로 이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생산, 노동 그리고 소비기능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협동화를 통해 국가에 장악되었다.²⁾ 다음으로 마을의

1) 박순성(1998, 137)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하에서 남과 북은 그 최전선에서 통일된 민족국가를 각자의 주도로 이룩한다는 것을 존재의 이유로 삼고 모든 측면에서 서로 경쟁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각각 반공주의와 반제국주의를 결합하여 강력한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식민지배에서 막 벗어나 완결된 국민경제를 형성하지 못한 분단사회에서 강력한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통일된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주요과제였다. 근대국민국가 건설은 중앙집권적 국가기구를 형성하는 것과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는데 북한은 민주기지론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사회주의 근대화 전략을 통해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시도하였다.

2) 자세한 내용은 권태상(2017, 141-146) 참조; “공화국 내각에서 개인 상공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로동신문, 1957/11/15: 1) 참조.

기존 전통적 권력구조는 마을에 파견된 제대군인과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정권의 충실한 동맹군으로 성장한 피 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 가족, 마을 외부 이주민들에 의해 재편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자연부락별로 만들어졌던 농업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되고 리 인민위원회와 리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마을은 완전히 장악되었다.³⁾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에 의해 마을이 장악되는 상황에서 마을의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순응하였다. 저항하는 주민들은 농업협동조합 가입을 미루거나 별도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방식 혹은 가입하더라도 조합 지도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런 저항에 대해 마을 내부에 존재하던 북한 정권의 동조자들은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여 농업생산량을 높여 사회주의적 근대의 ‘위대성’을 선전하였다. 그리고 술선수범하여 마을에 근대적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근대적 보건 위생 관념을 전파하여 전통적 마을질서를 무력화 시켰다. 그리고 반대자들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은 국가에 장악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이행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상층 엘리트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권력투쟁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단일한 계급적 실체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농민들이 전후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분석하려고 하였다.

3) M.Weber이래 정치집단이 사용하는 지배수단이 타인의 저항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라는 의미에서 권력과 지배에 대한 피지배자의 자발적 복종을 의미하는 권위의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장악”이라는 용어는 당시 조선훈동당이 마을 장악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면서 동시에 마을 내 새로운 주체 형성을 통해 마을내부 구성원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조선노동당의 장악 시도에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기존의 북한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인 마을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였다. 사회주의로의 체제이행과정에서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과 각 정치세력들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마을은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마을이라는 공간은 일방적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수행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는 공간이며 국가와 사람이 접촉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마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주민들이 맺는 관계의 다양한 층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간행물 중 『농업협동화 운동의 승리』1~6 자료에 주목하였다. 이 자료는 1950년대 각 마을에서 농업협동화 사업을 실제 추진하였던 간부들에 의해 작성된 문헌으로 각기 상이한 조건에 놓여 있던 마을의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북한의 농업문제를 다룬 역사학계의 선행연구(김성보a, 2001)에서 자료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소문 끝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소장중인 미군 노획문서 관련 마이크로필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농업협동화 운동의 승리』자료는 각 마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이지만 농업협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담당하였던 당 혹은 인민위원회 간부들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 서술 속에 드러나는 마을 주민들의 내면을 읽어내려 노력하였다.

II. 국가의 마을 장악시도

조선노동당의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 시도는 마을의 노동, 생산, 소비과정을 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업협동화를 시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김일성은 1953년 8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에서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토대로 마을을 농업협동조합으로 재편하였다. 그 결과 마을 단위의 생산과정을 사실상 국가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권태상, 2017: 136-140).

농업협동화에 이어 개인 상공업에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개인상공업을 각각 소비조합과 생산자 협동조합형태로 재편하였다. 그 결과 마을 단위의 소비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영역으로 편입하였다(권태상, 2017: 141-146).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은 마을단위로 전 국토에 걸쳐 설치되었으며 마을에서 생산된 농업생산물에 대한 유통망은 협동화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 농민들의 노동, 생산과 소비의 경제영역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다.

다음으로 마을의 내부적 권력구조를 재구성하였다. 농업협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55년 6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집중지도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에는 당의 중앙에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4,000명의 각급 당, 정권 및 사회단체의 일꾼들이 파견되었다. 지역으로 파견된 지도원들은 ‘농촌진지’의 핵심을 만들기 위해 세대군인과 애국열사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혁명투쟁 경험자, 열성농민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관리간부를 양성하고 배치하였다(김성보b, 2008: 340).

한국전쟁 이전 토지개혁시기 조선노동당은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빈농과 고농에게 나눠주고 이들을 통해 마을의 질서를 재편하려 하였다. 토지개혁의 수혜를 받은 빈농과 고농들을 통해 기존의 마을을 주도하던 봉건적 정치, 경제, 사회 질서를 장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유엔군과 국군의 일시적 점령시기에 많은 빈농들과 고농들이 오히려 조선노동당원을 학살하는데 앞장서는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쟁이후 농업협동화 과정에서는 제대군인, 애국열사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외부 이주민, 혁명투쟁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마을의 권력구조를 재편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대군인을 배치하여 부족한 간부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군대에서 익힌 정치학습과 근대적 규율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의 노동관행과 리 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의 조직운영관행을 바꾸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로 여성으로 이뤄진 피 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의 경우 1950년대 중반 농업협동조합의 약 60%에 달하는 노동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조합 운영에 적극참여하고 생산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부장적 마을 질서도 점차 해체되어 갔다.

조선노동당은 전쟁이후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새로운 마을의 주도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구 이동의 결과 북한의 마을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외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동성 마을의 특징들이 탈색되었고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제대 군인들이 마을을 운영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권태상, 2017: 146-151).

마지막으로 1958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의 통합문제

가 제기된다. 통합의 범위가 100호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대체로 자연부락 단위에서 리 단위로 통합되었다. 리 단위로 통합됨에 따라 같은 인물이 리 인민위원장과 협동조합관리위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그 결과 조합이 담당하는 생산과 리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던 행정이 일치하게 되고 통합된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는 생산과 행정이 결합된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리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던 행정업무는 통계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 행정과 생산을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다. 그 결과 리 인민위원회가 약화되고 리 당위원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리 인민위원장이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장을 겸임하게 되고 리 당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조선노동당의 영향력도 더욱 강화되게 된다.

더불어 리 당위원회가 협동농장관리위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시행된다. 리 인민위원회가 리 단위 협동조합 관리위원회에 통합된 상황에서 협동농장관리위원회의 생산에 대한 지도를 군 당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당 조직의 권한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결정된다. 뒤이어 다음으로 군 당위원회가 리 당위원회에 대한 사업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농업협동조합들이 통합되어 한 개의 리가 한 개의 농업협동조합이 된 상황에서 군 당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리 당위원회의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군 인민위원회와 군 당위원회의 관계도 규정되었다. 군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행정경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군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을 것을 확인하였다(권태상, 2017: 151-15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노동당은 마을의 노동, 생산, 소비의 과정을 장악하고 이를 운영할 마을내부의 새로운 핵심 권력집단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 내 핵심집단을 당적 지도를 통해 관리 하는

체제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마을 장악시도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대응하였을지 살펴보자.

Ⅲ. 마을 주민들의 저항

농업협동화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고 농업활동을 집단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농민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김성보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구래의 전통과 이를 뒤바꾸려는 개혁의 압력 간의 갈등”이었다(김성보a, 2001: 321). 이러한 시도에 대해 마을의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전쟁이후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근대국가의 혜택을 받았던 피학살자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들과 군대경험을 통해 사회주의적 근대를 체화한 체대군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근대를 받아들였다. 국가와 당의 의도에 따라 보건위생 관념을 전파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려 하였으며 근대적 교육체계를 마련하려하였다. 이들을 통해 국가는 마을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런 시도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저항하였다. 적극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파괴하고 탈퇴하는 등의 저항사례가 있었다. 또는 전통적 질서와 전통적 관념에 따라 새로운 근대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1. 부농, 중농의 독자조합 설립사례

평안남도 순안군 상양농업협동조합의 경우는 리 당위원장 리중순, 전쟁 중 학살로 가족을 잃은 최봉완, 해방이후 최초로 농민동맹을 결

성한 김사준 등을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상양마을의 농업협동조합은 토착농민 10호와 외부에서 이주해온 농민 2호를 합쳐 12호가 3형태로 결성하였다.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장은 리 당위원장인 리중순이 선출되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159). 한해가 지난 후 농업협동조합이 성과를 보이게 되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가입하려는 농민이 늘어나게 되자 마을의 부농들은 이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저항의 형태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부농과 중농이 중심이 되어 형성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 나선 사람들은 부농들이었으며 이들은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자신의 땅을 자작지로 인정받아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상양마을의 부농 중 대표적 인물인 이의근의 경우 토지개혁시기 계절노동을 일부 고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토지를 자작지로 인정받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신의 땅을 농업협동조합에 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농들은 중농들과 결합하여 2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자 시도하였다. 부농들의 이런 시도에 중농들은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런데 중농의 대표적 인물인 김두완은 원래 빈농으로 소작살이를 했었다. 해방이후 토지개혁의 성과로 땅을 분배받고 집까지 받은 이후 열심히 저축하고 살림을 꾸려서 중농에 이르게 되었다. 소, 농기구를 비롯하여 각종 가재도구를 다 장만하고 가축을 기르는 등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김두완은 자신과 함께 소작살이를 하였던 김사준, 김원하 등을 계절마다 고용하고 쌀을 꾸어주고 품으로 갚으라고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당위원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165).

이의근과 같은 부농과 김두완과 같은 중농 10호는 일부 빈농들을 끌어들이어 제2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을 따로 결성하려 시도하였다. 이들은 빈농들 중에서 젊고 농사를 잘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에게 ‘옛 신세’를 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우리들은 땅도 좋고 소도, 우차도, 농기구도 충분하니 우리에게로 오는 편이 유리하지 않는가?“, “중순이네 조합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맨 여자와 아이들과 로인들 만이 있으니까 결국 자네는 손해를 보게 되네”라고 설득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165-166).

젊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인 이태봉, 박군식, 이수근, 한익희, 이의현 등을 설득하기 위해 쌀과 돈도 빌려주면서 환심을 샀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마을의 애국열사가족과 후방가족 23호를 제외하고 전체 개인농가들의 조합가입 약속을 받았고 20호의 빈농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장까지 받았다. 이들은 몇몇 애국 열사가족과 후방 가족들이 조합에 가입하려 하자 “중순이네 조합으로 가라”고 하며 가입을 거부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 a, 1958: 165-166). 이들은 이와 같은 독자 조합설립시도를 통해 농업협동화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마을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2. 농업 협동조합 가입 거부 및 탈퇴운동 사례

황해남도 신천군의 경우 당시 마을에는 3명의 부농, 약 35%의 중농과 65% 가량의 빈농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피학살자 유가족인 주원순, 류의진과 같은 2명의 중농과 21호의 빈농이 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즉, 전체 약 500호의 마을 주민 중 23호를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을 건설하였고 나머지 중농과 다수 빈농들은 조합에 결합하지 않았다. 특히 부농들은 농업협동조합을 적대시 하고 비방하였다.

특히 박두만의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전쟁시기 만들어졌던 공동노동조직인 품앗이반의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나머지 두 호의 중농들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였지만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조합에 들지 말라고 비판하고 다녔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80-81).

자강도 자성군 상평리 제1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전쟁 중에 마을에 이주해온 과거 지주출신인 문시운이 마을 내에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저항하려 하였다. 문시운은“어디 없는 놈들끼리 모여서 농사를 얼마나 잘 짓나 보자”라고 하며 자기의 동생 문시빈, 친척 양준희 등과 함께“협동조합에서는 자식도 공동으로 기르고 살림도 네 것 내 것 구별이 없다”는 소문을 퍼뜨리고“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협동조합부터 결판 난다”라는 소문도 퍼뜨리며 농업협동조합의 성장에 대해 저항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287-288).

이와 같이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중농과 부농이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빈농의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농과 부농들이 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방해한 사례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이후에도 조합에 가입한 중농과 부농들은 조합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 혹은 해산하려 한 사례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배천바람’(김연철, 2001: 107)이라고 표현하는 배천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56년 신해방지구였던 배천군 방현리 이방개 농업협동조합은 조합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해 농업생산량은 국가계획의 70%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부조합원들은 중앙당 집중지도 그룹을“군빨갱이”, “도빨갱이”라고 지칭하며 마을의 농민들이 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합탈퇴를 주장하며 조합의 해산을 기도하였다. 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부유중농, 부농 및 과거의 지주와 그의 아들들이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76). 이와 같은 조합탈퇴운동은 개성일대와 황해도 일부로 확대되었으며 이 지역의 농민들은 1957년 영농준비를 위한 동원을 기피하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서동만, 2005: 576).

3. 가부장적 전통의 지속과 저항

이와 같은 계급적 차이에 따른 저항사례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저항도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농업협동농장의 박두만은 피학살자 유가족이지만 농업협동조합을 반대하였는데(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80-81), 그 이유는 품앗이반 반장이던 시절과 달리 처남대이었던 임선영이 농업협동조합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다른 여성들도 농업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의 가부장적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같은 농업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농업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유의진의 시아버지인 김성수는“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데를 뿔하러 들겠느냐”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참여를 반대하였다. 결국 김성수는 며느리인 유의진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며 손자들은 김가 자손이나 놔두고 나가라고 할 정도였다. 결국 유의진은 자기 몫의 땅을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에 결합하고 김성수 내외와 작은 며느리는 개인 농사를 짓게 되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80-83).

평안북도 룡천군 전진농업협동농장의 경우 토지개혁을 통해 중농으

로 성장한 김정필 노인의 집안에 아들은 군대에 나가고 며느리는 집에서 농사를 돕고 있었다. 농업협동조합이 발전함에 따라 김정필 노인의 아내와 며느리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자고 하였지만 김정필은 반대하였다. 이를 둘러싼 분쟁 끝에 아내와 며느리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김정필은 집안이 망했다고 하며 자기는 조합에도 안 들고 개인농도 안하겠다며 남녀가 서로 영키여 밀려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다며 바깥출입을 그만두었다고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200-201).

이와 같은 사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반대한 사례이다.

개성시 10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의령 김씨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집성촌이었다. 전체 100여 호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던 이 마을은 1955년 55호의 농가들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전체 농업경리의 48%가 협동조합경리로 운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령김씨 문중의 완고한 층들은 여전히 농업협동화를 반대하였다. 개인농들의 경우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중 친척들에게 역축도 빌리고 식량도 빌리는 등의 도움을 받으며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주저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362).

통추농업협동조합내에서는 각 씨족별로 다양한 형태로 문벌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상동마을의 경우 3개의 씨족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으며 씨족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며 문중끼리 마을 운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장악된 마을은 다른 마을과 물길을 둘러싸고 문중끼리 싸움을 벌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이 건설된 상황에서도 각각의 문중에서 작업반장까지 자기 집안에서 내야 한다고 갈등하는 사례도 있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위임b, 1959: 166-174).

위의 10월 농업협동조합 사례는 문중 혹은 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마을에서 문중의 어른이 주도하여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중회의와 같은 의사결정구조가 아닌 당의 결정과 지도에 따른 농업협동화에 대해 문중차원에서 저항했던 사례이다. 통추농업협동조합의 사례는 실제 농업협동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기존의 문중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구조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 문중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갈등이 벌어졌던 사례이다.

4. 미신, 종교 그리고 전통적 관념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처럼 마을의 전통적인 미신, 민간신앙 혹은 전통적 관념은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요소였다. 농업협동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마을의 구성원들은 미신과 민간신앙을 동원하여 전통적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평안남도 안주군 남칠농업협동조합에서 주택과 창고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농업협동조합 포전의 동북쪽 밤물재라는 지역을 주택지구로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밤물재는 집터가 썩어 살림이 망한다”,“묘를 써도 자손이 망한다는 땅에 집을 짓다니”라고 하며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와 당 위원회는 피학살자 유가족, 제대군인과 인민군 후방가족을 동원하여 공사를 우선 진행하면서 설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조상이 물려준 집을 버리고 높은 등성으로 올라간단 말인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되네 안돼…”라고 하며 노인들과 집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이 주택건설을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110-111).

이와 더불어 전통적 노동 관념에 따른 저항 사례도 있었다. 전통적인 농업에서의 노동시간에 대한 관념은 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는 여름에는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서 더워지기 전까지 일을 하고 낮에는 쉬고 저녁에 해지기 전까지 일을 한다. 그리고 노동을 매일 8시간씩 한다는 개념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겨울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계절이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근대적 시간’에 의해 움직인다. 모든 농민들이 정해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농민들은 태업하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강원도 철원군 백로산 농업협동조합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산간지대 이주민들은 집단생활에 대해 거의 생소했고 생활 관습에도 차이가 있었다. 김성울과 같은 이주 농민은 “일이 힘들어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조합일에 나오지 않고 다른 이주농민들과 함께 태업하려다가 실패하고 이주하였다. 김현일을 비롯한 이주농민들은 일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62).

자강도 자성군 상평리 제1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토 확장 문제를 두고 자성강 기슭에 있는 진펄을 개간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마을의 농민들은 “진펄에는 도깨비가 있어서 사람을 삼켜버린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하며 개간에 반대하였다. 마을의 나이 많은 조합원들은 “오죽하면 조상 때부터 비려왔으랴”라고 하며 반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

위원회 엮음a, 1958: 299).

함경북도 영안군 다진 농업협동조합의 경우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마을은 176호의 반농민·반어민으로 구성된 마을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마을의 농민들은 어민은 농민보다 신분적으로 아래라는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마을 내에는 어민과 딸을 결혼시키면 머리가 빠지도록 고기나 나르게 되고 태풍이 불면 과부가 된다면서 결혼도 꺼려할 정도였다. 농업협동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관념이 그대로 작동해서 농민들은 땅도 있고 농기구도 있는 반면 어민들은 아무 밑천이 없으니 농민과 어민을 갈라 따로 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318).

이런 농민들의 어민에 대한 우월의식뿐만 아니라 다진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조합이 발전함에 따라 어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노동의식이 발현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로반에 소속된 일부 어민들은 다른 농산반원들과 어로반원들이 작업할 때“좀 놀다가도 시세를 바로 맞추어 만선이나 몇 번 하면 봉창할 수 있다”고 하며 노동규율을 지키지 않았다. 또 해안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다모로리’풍습을 고치지 못해 관혼상제가 있거나 고기를 잡으면 잡았다고 한잔, 못 잡으면 못 잡아서 기분상한다고 한잔, 추위도 한잔, 비가와도 한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선을 기원하는 제사까지 지내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321-322).

IV. 농업협동화에 대한 순응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저항에도 마을은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피학살자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 제대군인, 외부 이주민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농업협동화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의 농업생산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보건위생 관념을 전파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려 하였으며, 근대적 교육체계를 마련하려 하였다.

1. 새로운 농법을 통한 생산력 향상

피학살자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 제대군인, 외부 이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의 새로운 주도세력은 기존의 농업전통에서 벗어나 냉상모판⁴⁾과 같은 새로운 농법의 도입을 주도하였다. 평안남도 순안군 상양 농업협동조합 운흥군 모정 농업협동조합은 1957년 평안남도 농업협동조합 관리일군대회에서 논 면적의 40%에 냉상모판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결의를 바탕으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냉상모판의 장점을 설명하고 기술 강습회, 경험 교환회 등을 통해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모내기를 앞둔 4월 12일 급작스런 기온 하락으로 냉상모판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원인 피학살자 유가족 김인하, 민청 맹원 서수도, 구우감과 같은 사람들은 냉상모판 주변에 밤새도록 불을 피워 모판의 냉해를 방지하였다. 그 결과 냉상모를 실시한 논에서 정보다 평균 4.5톤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냉상모를 실시하지 않은 논의 경우에는 정보다 2.3톤의 수확을 얻었다(조선로동

4) 김수대(2004: 38)에 따르면 냉상모판 농법은 모판에 비닐 박막을 덮어 모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모내기를 하는 농업이다.

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176-182).

이와 비슷한 새로운 농법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것 이외의 다른 사례⁵⁾가 많이 존재한다. 이처럼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청년들을 새로운 농업기술로 무장한 일꾼으로 양성하기도 하였다.

개인이 할 수 없었던 대규모 축산업과 양봉업을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여 소득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농촌에서의 기술적 개조를 강조하며 기술인재를 양성하여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모정 농업협동조합의 관리위원장은 민청의 청년들을 토지 개간사업, 농업 기술 크루쇼크, 서클 등을 통해 조합의 기술간부로 양성하고 이들을 당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조합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을의 청년들을 외부 전문학교에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기도 하였다. 제대군인 출신인 서병선을 함흥고등농업전문학교에 졸업 후 조합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조합에서 학비를 부담하기도 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143).

그리고 고등 중학교 졸업생인 김치우, 이형기 등을 8개월 코스의 양강도 농업기술간부 양성소에 파견하거나 김치환, 박병혁, 김선남을 혜산 축산전문학교 통신반에 보내기도 하였다. 축산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김치환 등은 98두의 어미 양들이 80마리의 새끼 양을 출산하는 동안 단 한 마리도 폐사시키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양에 대한 전염병 예방 사업을 스스로 하였으며 추운 겨울에도 양들을 키워 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5) 권태상(2017: 170)에서 양강도 운흥군 모정 농업협동조합 사례, 평안북도 용천군 전진농업협동조합의 사례를 참조할 것.

1958: 143). 근대적 과학기술에 기반 한 새로운 농법과 근대 학교교육의 세례를 받은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농업협동화를 지지하고 조선노동당을 옹호하였다.

2. 여성의 사회진출

양강도 운흥군 모정 농업협동조합의“통골집 며느리”라 불린 김병련이라는 여성은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왔다. 전쟁이 개시되고 남편은 남한점령을 위한 정치공작대로 파견되었고 이 여성은 유엔군과 국군 점령시기에 중국 길림성으로 후퇴하여 중국의 농업합작사에서 생활하였다. 남한에서 남편은 사망했지만 이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시집으로 돌아와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 여성은 리 당단체의 선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련의 콜호스와 소련 농민들의 삶과 자신이 경험한 중국의 생산합작사를 선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런 선전 작업을 바탕으로 안창연, 김석필, 조내문, 이금녀와 같은 제대군인 혹은 인민군 후방가족과 같은 당의 핵심인물들을 조직하였다. 이 여성은 곧 마을의 당 세포위원장이 되었고 뒤이어 모정농업협동조합의 관리위원장이 되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120-122).

함경남도 함주군 붉은별 농업 협동조합의 경우 한후방녀라고 하는 여성의 사례가 있다. 이 여성은 고농의 딸로 태어나 고농의 며느리가 되었다. 남편은 일본제국주의 시기부터 농민운동을 하였으며 한후방녀 역시 함께 활동하였다. 해방이후 1946년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고 마을 여맹위원장, 조선노동당 2차 당대회 대표로 선출되기도 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226-227).

한국전쟁 동안 남편, 큰딸과 시아버지가 학살당하였고 본인도 지하 공작 중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다. 농업협동화의 초기 단계에 한후방녀는 마을의 피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과 소거리반에 가입하지 못한 빈농들을 조직하여 1954년 2월 8호의 노력협조반을 구성하였다. 노력협조반의 농업생산 성과가 높게 나오게 되자 1954년 11월 흥보리 제1농업협동조합이 구성되고 한후방녀가 관리위원장에 선출되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 1958: 228-235).

이외에도 앞서 가부장적 질서에 따른 저항사례에서 인용하였던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농업협동조합의 임선영과 유의진의 사례는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가부장적 전통질서와 적극적으로 대립하면서까지 농업협동화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사례이다. 평안북도 용천군 전진농업협동조합의 김정필 노인의 며느리와 아내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높이면서 가부장적 질서와 대립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농업협동화과정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농업협동조합의 관리위원장이나 작업반장을 맡게 되었다. 이들은 피학살자 유가족 혹은 가족을 인민군에 보낸 후방가족이기 때문에 당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도 하였지만 여성들 스스로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였다.

3. 근대 교육시설의 설치

강원도 안변군 육화농업협동조합은 강원도 안변군 육화리의 육화, 어운, 대와, 하와의 4개 마을이 모여 만들어진 농업협동조합이다. 이 마을은 1956년 겨울 결산분배 이후 마을 자체의 자재와 자금으로 중

학교를 건설한 사례이다. 조합원들은 1956년 12월 23일 육화중학교 건설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부 기술노력을 제외하고 일체 노동력, 모래 그리고 자갈 등의 자재를 조합 자체로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다. 해방 이전 이 마을에는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부농들이나 10여 리가 떨어진 안변읍의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다수의 아이들은 겨울 한철에 서당에 다니는 상황이었다. 해방이전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자체의 힘으로 학교를 건설한다는 결정이후 공사현장에 수백 명의 농민과 달구지가 가득 찼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114-116).

당시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부는 1956년부터 초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1958년 11월부터 전반적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지만(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13)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교의 건설에서부터 운영까지 마을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을 주민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 결과 1957년 10월 5일 육화중학교가 개교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13).

육화중학교의 개교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면 탁아소와 유치원의 경우는 달랐다. 황해북도 금천군 석현 농업협동조합의 사례를 살펴보자. 1953년 10월 20호의 빈농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후 1954년 말이 되면 조합은 100호 규모로 확장된다. 하지만 새롭게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피난민이었다. 확장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휴경지와 전쟁피해지를 복구하여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관개 건설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13).

부족한 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의 60%인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조합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을 운영하자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반대한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설치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안은 부결되었다. 탁아소와 유치원 설치 제안이 부결된 이후 조합관리위원회는 조합 초급 당단체의 지도아래 피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부터 선전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공동편의시설의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 공동정미소, 목욕탕, 이발소 및 재봉소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의 장점을 설명하며 탁아소와 유치원의 장점을 선전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153-154).

마을의 새로운 주도세력이 되었던 피학살자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을 우선적으로 설득한 이후 마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결국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었다. 취학이전의 아이들은 집에서 양육은 집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전근대적 전통으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농업협동화 시기 마을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는 피학살자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 세대군인, 외부 이주민을 통한 선전사업을 통해 결국 설치하였던 것이다.

4. 보건위생관념의 확산

함경남도 영흥군 수원 농업협동조합은 보건위생관념을 확산하기 위한 선전사업과 더불어 독특한 방식으로 보건위생관념을 마을 내에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원리 내에서도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늪채지구에 진료소 일군들을 파견하여 우물을 검사한 결과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 이를 현미경을 통해 마을의 노인과 같은 보수층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이런 과학적 증거를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보건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노인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또 높재지구를 보건 위생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과 축사를 주택과 떨어진 것으로 옮겨 짓고 우물에 뚜껑과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작업은 마을에 배치된 민주선전실장과 작업반장, 조합 위생지도원이 주도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215-217).

이 과정에서 높재지구에서 3명의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와 마을의 젊은 층들이 주도하던 보건위생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노인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집탈’⁶⁾이 났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은 관리위원회를 찾아 와서 새로 지은 축사와 화장실을 허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조합 관리위원회는 이들 환자들을 진료소로 보내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진료 결과 폐렴과 회충감염으로 판명났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3일후 완쾌되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218). 이처럼 실제로 치료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병을 낫기 위해 굿을 하거나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것을 계몽하려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는 “과학과 미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조직하고 새로운 근대적 위생관념을 교육하였다. 그리

6) 김명자(2001)의 민속학연구 성과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신(家神)의 존재를 믿어왔다. 가옥의 중심이며 대청의 중심기둥에 성주, 안방의 윗목 벽은 조상, 삼신은 안방의 아랫목, 부엌의 부뚜막은 조왕, 집의 뒤뜰 장독대 옆은 터주, 업신은 광이나 고광의 뒤꼍, 장독에 우물신, 마구간에 우마신, 대문에 문신, 변소에 측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즉, 화장실과 우물의 위치를 옮기면서 가신들이 제 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집탈’이 발생했다고 믿은 것이다.

고 축사는 모두 주택에서 50m이상 떨어진 곳으로 옹기고 방풍 장치로 토담과 돌담을 쌓고 돈사(豚舍)는 뒤쪽으로 깊은 구덩이를 파서 오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화장실도 지붕은 기와로 벽은 흙을 바르고 백토칠을 하여 깨끗하게 새로 지었다. 화장실의 뒷벽에는 환기구를 내고 변기 뚜껑을 덮고 빗자루, 파리채, 휴지통, 소독수를 비치하여 깨끗하게 유지하였다. 우물은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이어 지붕을 만들고 방틀은 콘크리트로 개조하였다. 우물 주변에 오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시멘트를 바르고 도랑을 경사지게 설치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218-219). 이처럼 근대적 위생관념을 실제 건축에 까지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동위생사업과 더불어 개인위생사업을 위해 여성동맹을 동원하였다. 여성동맹을 통해 부엌의 그릇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의복을 제때 빨아입으며 침구를 일광소독하고 아이들의 위생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합 진료소와 연계하여 계절별로 홍역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조합진료소는 여성들 특히 임산부를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출산을 도와주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해 조합 관리위원회는 노동 조직에 있어서 배려하고 산전 산후휴가제를 실시하였다. 아동들의 보건 위생과 관련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이발은 15일에 1회, 양치질과 세수를 아침저녁으로 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리고 5세 이하의 아동들을 등록하여 발육상태를 점검하였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223-226).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이지 집을 잘 못 짓거나 조상에게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자주 빨고 집을 청소하고 소독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의 전통

적 질서를 지탱하던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풍습들이 근대적 위생관념의 도입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과정에는 근대적 교육체계의 수혜를 받은 청년들과 마을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부상한 피 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제대군인, 외부 이주민,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

V. 결론

전후복구사업 시기 북한의 마을이 조선노동당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은 우선 농업협동화와 상공업협동화의 추진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농민의 생활세계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공간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고 규율을 체득한 제대군인들을 각 마을로 파견하였다. 이들을 활용하여 각 마을의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새로운 주체를 양성하였다. 각 마을의 기층 간부로 파견된 제대군인들은 피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제대군인, 외부 이주민들을 마을의 새로운 주체로 키워냈다. 이들을 바탕으로 농업협동화를 추진하였고 이들이 농업협동조합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들이 마을의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전통질서를 깨뜨리기 위해 마을단위로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리 단위로 농업협동조합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리 인민위원회와 리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를 합쳤다. 이와 더불어 생산과 행정적 지도과정에 군 당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리 지역과 농업협동조합을 강력한 당적 지도체제로 묶었다.

이런 조선노동당의 마을 장악시도에 대해 농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이들의 저항의 형태는 강력한 정치투쟁을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농업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미루고 가입을 하더라도 경제적 약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거나 개인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혹은 가부장적 인식에 기초하여 여성이 작업반장을 맡거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것을 반대하거나 사보타지 하기도 하였고, 동성촌락의 경우 다수 성씨들이 자신들끼리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른 성씨들을 배척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전통적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근대 국민국가의 장악시도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함께 마을에 거주하던 사람들에 의해 포섭되었다. 제대군인, 피 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외부 이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마을의 권력집단은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근대 국민국가의 질서를 받아들였다. 우선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농업협동화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근대적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보건 위생과 관련하여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과정을 실제 경험하게 해주는 방식을 통해 전통적 관념을 극복해 나갔다. 그 결과 조선노동당이 추구하던 사회주의 근대 국민국가는 마을단위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 접수: 10월 10일 ■ 심사: 11월 2일 ■ 채택: 11월 13일

참 고 문 헌

- 권태상. 2017. “사회주의 이행기 국가-마을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 2001. “가신신앙 이렇게 변화하면서 전승된다.” 『실천민속학 새책』3호. 실천민속학회.
- 김성보a. 2001.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 김성보b. 2008. “전쟁과 농업협동화로 인한 북한 농민생활의 변화.” 『동방학지』143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수대. 2004.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과 농업혁명방침.” 『KDI 북한경제리뷰』2004년 4월호.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 박순성. 1998. “남북 경제체제의 변화와 경제통합의 모색.” 『사회과학연구』37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 차문석. 2001. 『반노동의 유토피아 -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 서울: 박종철출판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a. 1958. 『농업협동화 운동의 승리 - 개인농 경리로부터 협동경리에로』1권.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엮음b. 1959. 『농업협동화 운동의 승리 -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건설』4권.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ABSTRACT

A Study on State – Village relationship in th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era

Kwon, Tae-Sang

(Dongguk Univ,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article is about the proces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aking control of the village and their react after the Korean War. The “Korea Labor Party” has socially restructured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labor processes of the village through cooperation with agriculture and commerce. And the genocide victim’ s family, family members of the people's armed forces, out-of-town migrants, and discharged soldiers. In addition, they tried to take control of villages by integrating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that were created in each village and by strengthening the party 's control over Lee

In response to these attempts, the villagers refused to join agricultural cooperatives or attempted to establish their own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accordance with their class interests.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al order of the villages, they attempted to operate labor and towns based on traditional notions and tried to maintain their vested rights by excluding the new leadership of the village. These attempts did not appear in the form of aggressive political resistance, but in some areas they were called "Baechun winds" and were a significant threat.

This resistance was gain control by people who lived in the same village. New Leaders of the village have applied new farming methods to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increase

agricultural output. In addition, nursery facilities and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to mobilize women's labor, ensuring women's advancement into society, and fostering a new generation that received modern education. Finally, in order to overcome traditional myths and notions, modern science was promoted to emphasize health hygiene and propagate scientific thinking to neutralize traditional village order. Through this process, the villages of North Korea were taken over by the state.

Key Word : North Korea, villages, country-village relations, agricultural cooperation, resistance, compliance